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관 3층 창구가 5월 15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진료비 수납, 당일 수술 후 입원 수속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당일수술센터, 통증클리닉, 신관 주사실 등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5월 23일 신관 3층 창구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는 환자들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외래식당가 여름 계절메뉴 출시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여름 계절메뉴를 만나보세요!

푸드코트		가람	
초계물막국수 (10,000원)	초계비빔막국수 (10,000원)	물막국수 (9,500원)	비빔막국수 (9,500원)
한강			
물냉면 (9,500원)	비빔냉면 (9,500원)	회냉면 (13,000원)	떡갈비 (10,000원)
남경	금강산	스카이라운지	신관지하카페
중화냉면 (13,000원)	도토리냉면 (8,500원)	지중해식파스타샐러드 (23,000원)	망고빙수 (12,000원)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유영(외과간호팀)

스카이라운지 이용권(70,000원)
박은순(내과간호2팀)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소미현(수술간호팀)

윤은자(영상의학팀)
장진규(영상의학팀)

추나영(건진운영팀)

아로마틱 핸드 워시
(50,000원 상당)
신향리(외래간호팀)
오정선(수술간호팀)

달마이어 이용권(10,000원)
김수정(진단검사의학팀)
박양재(심장병원간호팀)
박창동(중환자간호팀)
유나리(영상의학팀)
장소희(수술간호팀)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3년 6월 15일(목)
발표 제704호(2023년 7월 1일 발간)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02 2023. 6. 1



마지막 코로나19 회의... “환자안전은 계속된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 정기회의가 5월 17일 170번째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상황실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는 등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리 병원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로부터 환자와 직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사진은 5월 17일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 회의에서 박승일 병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3년 6개월간 우리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되돌아보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3면)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 정기회의가 5월 17일 170번째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상황실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는 등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리 병원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로부터 환자와 직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사진은 5월 17일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 회의에서 박승일 병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3년 6개월간 우리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되돌아보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3면)

04 NEWS 코스타리카서 한국 간이식술로 생체 간이식 성공

12 이야기가 있는 산책 뮤지컬 소재와 배경, 아는 만큼 빠져든다

14 잡(JOB)·담(談) 격려를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간호

20 문화·생활정보 ‘따릉이’ 타고 떠나는 서울 라이딩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1229일간의 노력

“하나로 뭉쳐 위기 극복하는 게 우리 병원 DNA... 최선 다해 준 직원들께 감사”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됐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1229일 만이다. 박승일 병원장을 재난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 구축

우리 병원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랜 기간 다져온 감염관리, 환자안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23일 입원 환자의 면회를 전면 제한했고 ▲1월 29일부터는 동·서·신관 출입구 10곳에서 발열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환자·보호자·직원 스크리닝을 위해 서관 응급실 옆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당시 직원들은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해 내원객들의 발열 상태를 일일이 확인했다. ▲2월 5일에는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를 위해 원내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고 ▲3월 2일에는 직원 선별검사실을 설치했으며 ▲2021년 8월 27일에는 스크리닝 및 출입정보 관리를 위해 스마트출입시스템을 도입했다.

송종민 당시 감염병대책본부장(전 진료지원실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을 중심으로 진료부, 간호부, 관리부 등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애써준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2020년 2월 4일 직원들이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해 동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환자들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확진자 치료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2020년 2월 2일부터 전담치료병상(ACU) 운영을 시작했다. 2020년 2월 27일 우리 병원에 첫 외부 확진자가 이송됐고, 3월 31일 136병동에서 첫 원내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리 병원은 즉시 ▲확진자 동선 확인 ▲노출 상황 확인 ▲환자 및 보호자 노출자 조사 ▲고위험 노출 환자 격리 ▲확진자 경유 구역 임시 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확진자의 안전한 이송 및 진료를 위해 유행성감염병 대응팀(EIDT)이 현장에 나섰고, 병동 내 확진자 발생과 대규모 검사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현장 대응팀이 꾸러지기도 했다.



2020년 2월 27일 우리 병원으로 첫 외부 확진자가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우리 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모니터링과 관리 및 치료를 전담하는 서울시립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를 전담 운영했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했으며 운영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1,026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았다.

이제환 진료부원장은 “코로나19로부터 환자 안전을 잘 지켜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병원이



박승일 병원장(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경영진이 2021년 7월 27일 서울시립대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중증 환자 치료에 있어 큰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우리 병원은 2021년 3월 5일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89.2%(1차 접종), 95.8%(2차 접종), 90.1%(3차 접종)라는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다. 또한 직원들은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직원 생활 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3월 5일 김성한 감염관리실장과 이제환 진료부원장(첫 번째, 세 번째)을 비롯한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2022년 2월 10일에는 민간병원 중 처음으로 감염관리센터가 개소했다. 감염관리센터는 감염병 확진 또는 의심 환자를 응급실과 외래 내원 단계부터 분리해 검사, 입원, 수술 등 진료 전 과정에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이다. 우리 병원은 감염관리센터를 통해 고위험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시기에도 호흡기감염 질환과 해외 유입 감염병 위험 등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김성한 감염관리실장은 “우리 병원은 감염병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감염관리센터가 생겼고, 고위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강화됐다.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오더라도 환자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생겨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을 복기하며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은 5월 17일 열린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대응 전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점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원 체계 마련 ▲원내 감염관리 전문가 최신 의견 공유 ▲국가 정책보다 선제적인 대응 ▲확진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인력 변화 관리 ▲노출 조사 및 출입구 관리 등 신속한 전산 고도화 ▲전국 대비 30% 높은 백신 접종률 ▲위기 상황에서 협조적인 조직문화 등이 꼽혔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위기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세스 보완 ▲위기대응 전문가 교육 및 준비 ▲근무 인력 공백에 대비한 순환배치 또는 역량강화 ▲호흡기 감염 전파 특성에 따른 방역 정책 검토 등이 꼽혔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유행성감염병대응팀(EIDT) 교육과 위기대응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감염관리센터 중심의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 ▲공기전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박승일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로 뭉쳐 극복해 내는 특별한 DNA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와 직원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우리 서울아산병원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해 냈다고 평가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당시 155격리병동 의료진이 퇴원하는 확진 환자와 보호자를 배웅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서 한국 간이식술로 생체 간이식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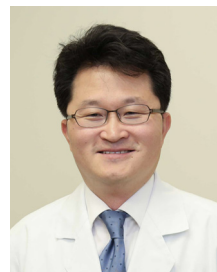


코스타리카 칼데론 병원 간이식팀이 자국 최초로 성인 생체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4월 13일 코스타리카 일간지 '엘파이스'에 보도됐다.

코스타리카 칼데론 구아디아 병원 간이식팀이 우리 병원에서 전수받은 간이식 기술을 바탕으로 4월 11일 코스타리카 최초로 성인 생체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1991년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가 고안한 '변형 우엽 간이식'을 통해 코스타리카의 간경화 환자 자네트 로시오(60세) 씨가 딸 비앙카 오비에도(32세) 씨의 간을 이식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중앙아메리카를 통틀어 간, 췌장, 소장, 폐 이식을 가장 먼저 시행한 칼데론 병원은 생체 간이식에 도전하기 위해 우리 병

원에 협력을 요청했다. 2019년 5월 우리 병원이 생체 간이식을 전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칼데론 병원 간이식팀 의료진 24명은 그 해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병원에서 간이식 연수를 받았다. 연수 후 자국으로 돌아간 칼데론 병원 간이식팀 의료진은 생체 간이식 수술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을 현지에서 구축해 나갔고,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침내 성인 생체 간이식 수술에 성공할 수 있었다. 수술을 집도한 칼데론 병원 간이식팀 간체장담도 및 이식외과 바네스 로페스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 의료진의 도움으로 이곳 코스타리카 환자와 가족의 삶이 바뀔 수 있었다. 우리가 생체 간이식 자립에 성공하기까지 성심성의껏 의술을 전수해 준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승규 석좌교수는 "어려운 수술을 스스로 훌륭하게 해낸 칼데론 병원 간이식팀 의료진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의료 기술을 전수해 세계 곳곳의 많은 환자들이 새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인 염증성 장질환 유전자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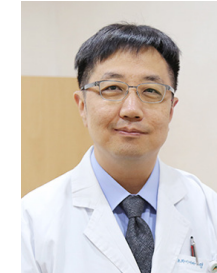


예병덕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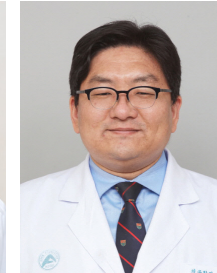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인의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화기내과 예병덕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송규영 명예교수·이호수 부교수팀은 동아시아인종 1만 4,393명과 유럽인종 3만 713명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그리고 1만 5,456명의 동아시아인종과 33만 8,106명의 유럽인종 건강대조군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통해 염증성 장질환과 연관된 새로운 유전자위 161개를 찾아냈는데 이 중 80개가 동아시아 환자 데이터에서 발굴됐다. 앞서 유럽인종에서 발굴된 유전자위를 포

함해 현재까지 총 320개 유전자위가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기존에는 유럽인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인 염증성 장질환 발병에 연관된 새로운 유전자를 규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인 발병기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예병덕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 특히 크론병은 동양인과 서양인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들의 영향으로 발병된다. 이번 연구결과가 동서양 환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염증성 장질환 통합 진단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중국 통지대 의대, 일본 도호쿠대 의대 연구팀도 참여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최근 게재됐다.

삼킴 곤란 진단하는 식도내압검사 분석법 개발



정기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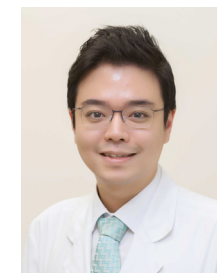


주세경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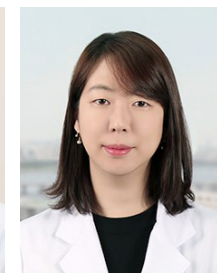
소화기내과 정기욱 교수, 의공학연구소 주세경 교수팀이 삼킴 곤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분석법(VI법)을 개발했다.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법은 센서가 달린 카테터를 환자의 식도까지 넣은 후 생리식염수를 삼켰을 때 발생하는 센서 사이의 저항값과 식도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측정된 저항값을 적분하는 분석 방법(TE법)으로 삼킴 곤란을 진단해 왔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많아 더 정확한 진단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팀이 개발한 VI법은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서 측정된 저

항값의 역수를 적분하고 삼키기 전과 후의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식도이완불능 환자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 ▲검사 결과도 정상이고 증상도 없는 환자 각 12명을 대상으로 TE법과 VI법의 진단 민감도를 분석했다. 식도이완불능 환자군과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군 및 무증상군을 비교한 결과 ▲TE법 0.80 ▲VI법 0.83으로 진단 민감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삼킴 곤란 환자군과 무증상군의 진단 민감도를 비교했을 때 ▲TE법 0.68 ▲VI법 0.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삼킴 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군과 무증상군을 비교한 결과 진단 민감도가 ▲TE법 0.51 ▲VI법 0.68로 더 큰 차이를 보여 VI법의 진단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VI법은 국내 특허를 취득했으며 현재 북미에도 특허를 출원해 심사 중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기능성 소화기 운동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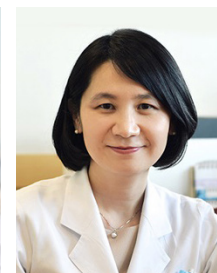
근육 적은 비만 환자, 근지방증 위험 4배



정창희 교수



조윤경 조교수



김홍규 교수

노화, 신체활동 감소 등으로 근육량과 근기능은 줄고 지방량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 환자의 경우 근육의 질 저하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조윤경 조교수, 건강의학과 김홍규 교수팀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간이나 심혈관 등에 질환 발생 이력이 없는 1만 3,612명의 복부 CT 영상을 분

석했다. 영상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체 복부 근육을 건강한 근육과 건강하지 않은 근육 등으로 세분화하고 전체 복부 근육에서 건강한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인 좋은 근육량 지표를 개인별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근지방증을 가진 비율이 근감소증이나 비만이 아닌 정상 그룹(310명)에서는 17.9%였지만 근감소성 비만 그룹(9,353명)에서는 54.2%로 나타났다. 정상 그룹에서 근지방증 발생 위험을 1로 보았을 때 근감소성 비만 그룹에서 근지방증이 생길 위험은 3.7로 두 그룹 간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 근감소성 비만은 지방 독성, 만성 염증, 인슐린 저항성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상 근육의 양과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연구팀은 근지방증이 근감소성 비만의 진행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비만학회의 국제 학술지 '비만'에 최근 게재됐다.

20개국 코성형 전문가 최신지견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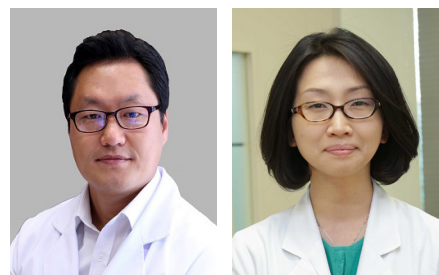


제19회 아산코성형심포지엄에서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9회 아산코성형심포지엄이 5월 13일부터 이틀간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대만 등 20개국에서 온 의학자 80여 명을 포함해 총 16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를 비롯해 미국 예일의대 데렉 스테인

바커 교수, 이탈리아 안면성형외과협회 스텔리오 안토니오 모첼라 교수, 유럽안면성형외과학회 호세 카를로스 네베스 박사 등 국내외 전문가 28명이 연자로 나섰다. 심포지엄에서는 ▲코성형술에서의 해부 ▲늑골 연골 코성형 수술 ▲작고 굴곡진 비중격연골 환자의 코끝 지지력 강화 방법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라이브 서저리’ 세션에서는 장용주 교수가 가슴 연골을 이용한 개방형 코성형 수술을 시연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호세 카를로스 네베스 박사가 최근 코성형 수술계의 화두인 보존 코성형술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장용주 교수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올해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설레고 기대가 컸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학술 교류, 친목 도모를 통해 학문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고 의료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라만분광·인공지능 기반 동맥경화 진단기술 개발



김준기 부교수 강수진 교수

융합의학과 김준기 부교수, 심장내과 강수진 교수팀이 혈액 한 방울로 동맥경화의 중증도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동맥경화 위험도를 계층화하고 대응하는 기준법을 처음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연구팀은 표면이 거친 금속의 플라즈몬 공명 현상을 이용해 라만분광 신호를 비약적으로 증강시키는 기술인 비표지 표면 증강 라만분광법(SERS)을 활용했다. 지질분해 효소를 활성화하는 아포지단백 E를 결손시킨 유전자 조작 마우스를 대상으로 왼쪽 경동맥 일부를 외과적으로 절찰해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도한 뒤, 소동물 자기공명영상과 면역조직 염색화학법을 통해

동맥경화 여부를 검증했다. 이후 경증, 중증 동맥경화 모델 쥐와 대조군 쥐에게서 채취한 혈액을 나노 바이오마커 검출용 SERS 칩 위에 한 방울(5uL) 올려놓아 라만 신호를 획득했다. 주성분 분석(PCA)과 기능 성분 지도(PLS-DA) 메커니즘을 접목한 결과 연구팀은 라만 스펙트럼의 주성분 공간에서 대조군, 경·중증 질환군을 순차적으로 잇는 벡터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 벡터를 따라 질환군의 데이터가 그룹화되는 것과 이에 기여하는 라만 스펙트럼의 피크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활용된 피크들은 동맥경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죽상반 관련 지질 등과 연관돼 있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성을 검증한 결과 ▲PCA 기반 진단 ▲PLS-DA 활용의 정확도가 각각 94.5%, 97.5%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공학 및 생명의학 분야 저명 학술지 ‘바이오엔지니어링 및 중개연구’에 최근 게재됐다.

경영진 환자안전 라운딩



5월 24일 박승일 병원장(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경영진이 163병동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올해 첫 경영진 환자안전 라운딩이 5월 24일 신경외과와 163병동, 164병동에서 진행됐다. 경영진 환자안전 라운딩은 경영진이 임상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자 안전에 대한 직원들과의 소통을 넓히고 ▲중요한 환자안전 문제를 발견해 신속히 개선하며

▲환자안전 문화를 향상하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을 끝으로 중단된 뒤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환자안전 라운딩에는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김건석 교육부원장, 김명숙 간호부원장, 임종진 관리부원장 등 경영진과 P시실 의료진, 질 향상·환자안전 전문가(QPS 히어로) 활동에 참가하는 직원 등이 참여했다. 경영진은 163병동 스테이션과 치료실, 164병동 관찰실 등 공간을 둘러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일 병원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 차원에서 고민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환자안전 관련 문제를 직접 살피며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협약 체결



박승일 병원장(왼쪽)과 오세훈 시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서울시와 함께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병원은 소아전문응급센터 24시간 상시 운영과 근무 인력 확보에 힘쓰고, 서울시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해 야간과 휴일에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승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이 소아응급 체계를 재점검하고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두경부 수술 가이드 앱 디자인상 수상

우리 병원의 증강 현실(AR) 두경부 수술 가이드 앱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023년 서비스 디자인 컨셉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이 증강 현실 두경부 수술 가이드 앱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으로 성형외과 최중우 교수와 SKIA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했고,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에서 UX/UI 가이드라인

을 제작 지원한 프로젝트다. 이 앱에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의 얼굴에 의료 영상데이터를 투영하여 골절 및 손상 부위, 혈관과 같은 신체 구조를 나타낼 수 있고 ▲정확한 손상 부위와 혈관 위치를 환자 몸 위에 직접 보여줄 수도 있어 의사 숙련도에 따른 수술 편차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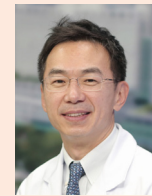
이동

채희동 교수 울산대 의무부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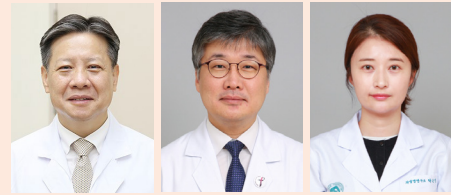
산부인과 채희동 교수가 5월 15일 울산대학교 제 18대 의무부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5월 15일부터 2025년 4월까지다. 채 교수는 2000년 울산 의대 산부인과학교실에 부임한 이후 ▲교무의학과 과장 ▲학생부학장 ▲교무부학장 ▲제16, 17대 학장을 역임하며 울산의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채 교수는 “의대 교육과정 개편의 완성, 교육장 이전 등과 관련한 문제, 대학 시스템의 슬림화 등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울산의대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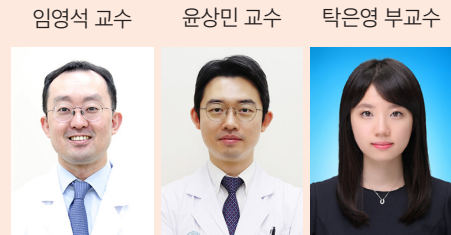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이 5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반 소장은 감염병 국가 임상시험 협의체를 통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표창을 받았다.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서 수상



우리 병원 의료진이 5월 18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The Liver Week 2023)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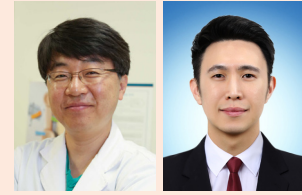


수상했다.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간 분야 연구에서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연구 업적을 달성한 공

로를 인정받아 선도연구업적상을 받았다. 최중기 조교수는 'B형 간염 표면 항원 소실이 B형 간염 관련 간세포암 수술적 절제 후 후기 재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학술상을, 'B형간염 표면 항원 소실 후 간세포암 발병위험 예측'을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최원목 조교수는 'e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기저 바이러스 수치와 치료 중 간세포암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주제로 젊은 연구자상을, 홍혜연 임상강사는 '간세포암에서 렌바티닙과 지질친화성 스타틴의 항암작용 상승효과'를 주제로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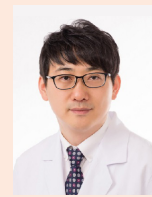
구연상을 받았다. 방사선종양학과 윤상민 교수는 '고령 간암 환자에서의 체부정위방사선치료 결과'라는 주제로 대한간암학회지 논문상을 받았고, 융합의학과 탁은영 부교수는 '간 섬유화 생체 연구'를 통한 miRNA 기반 치료용 재건줄기세포 생체 내 유도 기술 개발 연구가 대한간학회 기획과제에 선정됐다.

백정환 교수·김평화 조교수 국제저술상



영상의학과 백정환 교수·김평화 조교수가 5월 11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저술상을 받았다. 백 교수와 김 조교수는 '소아갑상선결절에 대한 5개의 성인기반 초음파 악성 위험도 분류체계의 진단능'을 주제로 한 논문을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 학술지인 '라디올로지'에 게재해 학회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조민우 교수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가 5월 17일 열린 제17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한미중소병원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향상 및 보건의로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조 교수는 중소병원 적성성 평가 개선방안 및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방안 연구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조정목 임상강사 젊은연구자상·연구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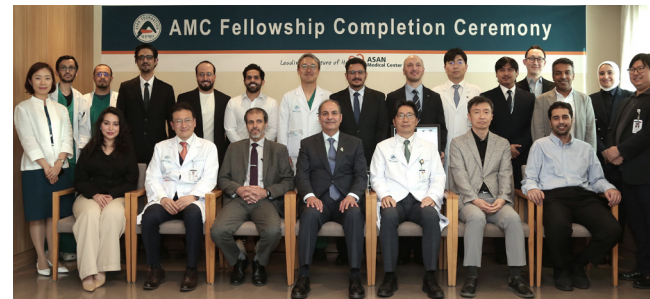
성형외과 조정목 임상강사가 5월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3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성형 학술대회에서 성형외과 분야의 기초의학 발전에 공헌하고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또한 '림프부종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를 위한 3D 스캐닝 모델 알고리즘을 이용한 불림 측정 기술'을 주제로 발표해 W송원재단 연구장려상을 받았다.

김경훈 레지던트 우수구연상



피부과 김경훈 레지던트가 5월 19일 열린 제7차 아시아피부외과학회 심포지엄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 레지던트는 '위치에 따른 얼굴 흉터의 양상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중동 의학자 연수 수료식



중동 의학자 연수 수료식에서 김건석 교육부원장과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앞줄 오른쪽 세 번째, 네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은 중동 의학자 수료식이 5월 23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연수 지도를 맡은 이비인후과 최승호 교수 등 의료진과 김건석 교육부원장, 전인호 국제사업실장,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 29명이 참석해 연수를 마친 해외의학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연수를 마친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이브라힘 고씨도 임상강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훌륭한 팀과 함께 일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합동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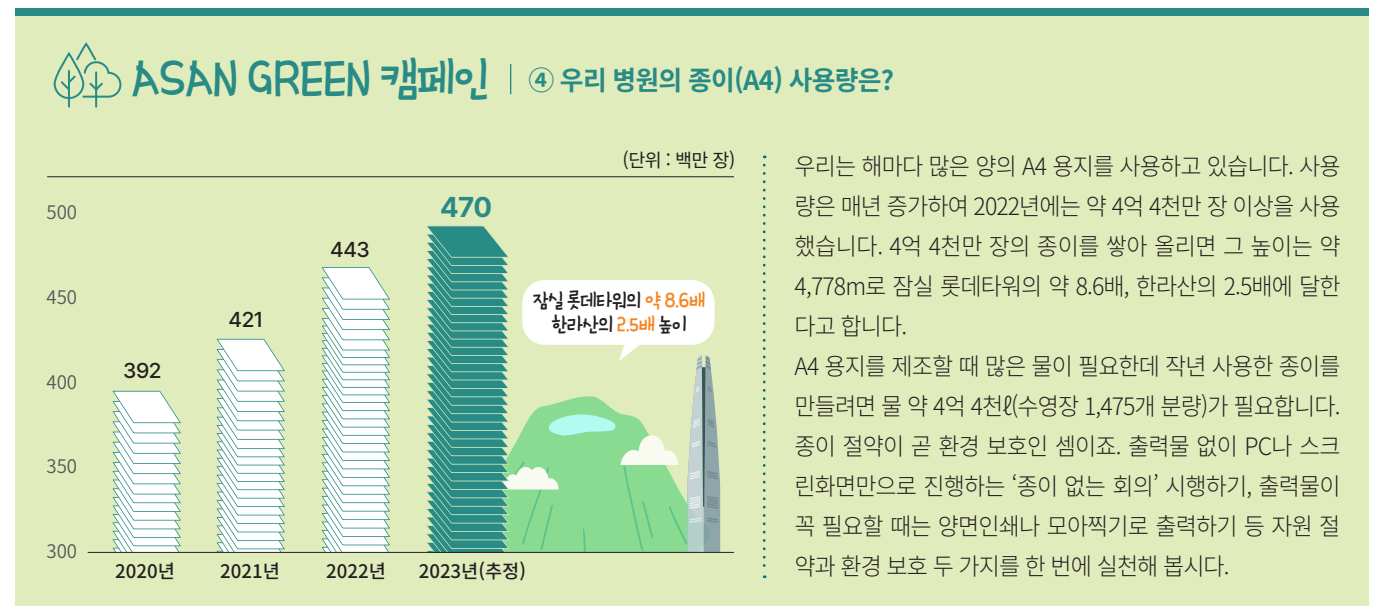
서울 동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합동 심포지엄이 5월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우리 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함께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원내·외 의료진 400여 명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 관리 ▲피부발진으로 나타나는 약물 부작용 ▲병원 벡타락탐 피부 시험의 유용성 ▲한국형 백신 안전성 능동감시 시스템 ▲고령 환자에서의 약제 사용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중국 온주시 경제무역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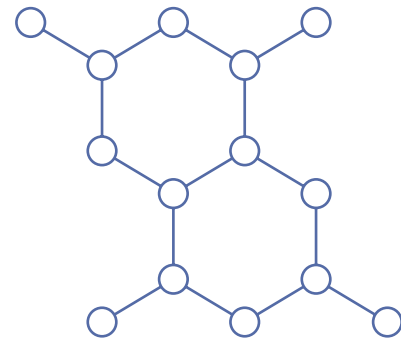
중국 절강성 온주시 경제무역단이 5월 15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방문단에는 왕진용 온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상해, 항주, 온주 등의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예스타 국제메용성형그룹의 사총 부회장 일행이 포함됐다.

방문단은 아산기념전시실, 건강증진센터, 국제진료센터 등을 둘러본 후 동관 대회의실에서 최종우 해외병원사업단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우리 병원과 온주시 지역 내 의료기관 간의 학술 교류 및 해외의학자 연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맞춤형 분석 서비스

융합연구지원센터 유세포분석실



유세포분석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세포의 크기, 내부 입자의 조성, 표지 된 형광의 세기 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분석법은 면역학, 세포생물학과 함께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중앙면역학, 세포면역학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실험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해 연구자들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융합연구지원센터 유세포분석실을 소개한다.

유세포분석기는 형광물질이 표지된 낱알의 세포들을 컴퓨터로 수치화해 히스토그램, 점 도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한다. 다양한 항체를 하나의 세포에 염색함으로써 혈액 혹은 조직에 침윤한 다양한 형태의 면역 세포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일정 범위를 지정한 뒤 재분석하거나 분리해서 세포 배양 등 후속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세포 사멸, 세포주기, 세포 내 활성산소 측정, 미토콘드리아의 탈분극, 형질주입 등 다양한 생물학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고 소량의 시료에서 다양한 세포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임상 검체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세포분석실은 3개의 레이저와 8개의 디텍터를 이용해 동시에 8개 색까지 측정할 수 있는 분석장비(FACSCanto II™) 2대와 분리장비(FACSAria II™)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 장비를 통해 다색 유세포 분석 디자인, 실험 방법 및 결과 분석 자문,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다색 유세포 분석 결과가 임상 검체를 활

유세포분석실

- 담당교수 : 류마티스내과 홍석찬 부교수
- 위치 : 융합연구관 9층
- 연구 지원 서비스
 - FACSCanto II™ 분석 서비스
 - FACSAria II™ 분리 서비스
 - 다색 유세포 분석 디자인 교육, 자문 및 결과 분석
 - 유세포분석기 사용법 및 분석 전용 프로그램 교육

용한 중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어 임상 의학자들과 기초 연구자들의 협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유세포 분석장비의 발전으로 20가지 이상의 더욱 많은 형광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됐고, 세포 밖 소포체 등 소입자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이에 발맞춰 유세포분석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연구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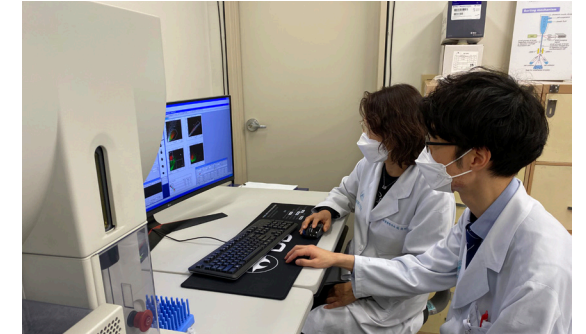


Q. 세포가 아닌 혈청 사이토카인을 측정할 수 있는지
 혈청을 포함한 체액이나 배양액의 사이토카인은 CBA(Cytokine Beads Assay) 방법을 이용해 유세포분석기로 측정이 가능하다. CBA는 항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키트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한정된 시료에서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동시에 정량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CBA 분석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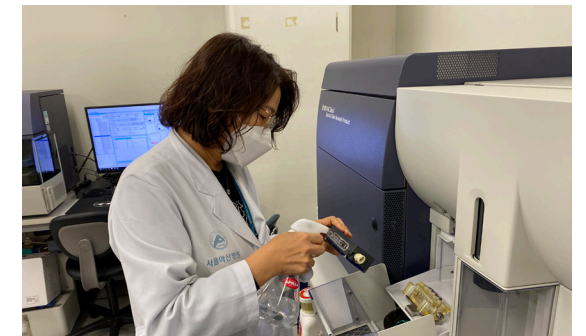
Q. 엑소좀 분석이 가능한지
 엑소좀은 100~200nm 크기의 매우 작은 소포체로 현재 유세포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유세포분석기를 사용 시 노이즈와 구별이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엑소좀 크기의 사이즈 마커 비즈를 사용해 비슷한 크기의 소포체 중 엑소좀 발현 표지자로 염색한 경우 분석이 가능하다. 앞으로 관련 최신 장비가 도입된다면 보다 활발하게 분석 및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유세포분석기 분석 후 생성되는 PDF 파일 외에 더 다양한 분석 및 효율적인 데이터 정리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유세포분석기에서 생성된 원본 데이터 파일을 이용한 분석 전용 프로그램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FlowJo™(BD Biosciences)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맵으로 만들어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flowsom 기법 등 다양한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다. 유세포분석실에는 분석을 위한 FlowJo™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으며 필요로 하는 연구자에게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Q. 유세포분석기 분석 후 원하는 세포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유세포분석실에 보유 중인 세포 분리장비(FACSAria II™)는 유세포분석기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에 표지된 형광값을 분석하여 원하는 타겟 세포를 분류할 수 있는 장비다. 분리하려는 세포는 세포의 크기와 특성, 표적항원의 발현 양, 타겟 세포의 빈도(%) 등을 유세포분석기로 미리 분석하면 실제 세포 분리 시 분석 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크기의 노즐과 세포 유입 속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순수 분리된 세포들은 다시 배양하여 증식시키거나 RNA, DNA, 단백질을 추출하는 등 다양한 후속 실험에 사용된다.



(오른쪽부터) 류마티스내과 홍석찬 부교수와 융합연구지원센터 위유미 차장이 FACSAria II™ 장비를 이용해 조직 세포에서 원하는 세포를 순수 분리하고 있다.



융합연구지원센터 위유미 차장이 분리된 세포가 준비된 튜브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장비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

※ 융합연구지원센터는 연구 고도화와 전문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러 코어랩을 구성했습니다. 각각 전문화된 코어 기술의 효율적 운용은 우리 병원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슬기로운 연구생활' 코너에서는 융합연구지원센터가 원내·외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뮤지컬, 아는 만큼 재미있다 ③

뮤지컬의 소재와 배경 아는 만큼 빠져든다



특수검사팀 안대성 발성치료사

“

뮤지컬 속의 주인공은 슬플수록 노래하고, 기쁠수록 모두와 함께 춤을 춘다.
뮤지컬에 우리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

뮤지컬은 태생적으로 리얼리티를 형성하기 어려운 장르다. 사랑에 빠진 순간에 세레나데를 부르거나 기분이 좋다고 다 같이 춤을 추고, 복수를 다짐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뮤지컬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환상과 현실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정적인 무대 위에서 대사, 노래, 무대, 조명과 음악이 우리를 환상적인 세계로 이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바람을 담은 판타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하고 있다. 수많은 뮤지컬이 존재하는 만큼 소재도 다양하다. 누구나 아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은 제외하고, '판타지' '스릴러' '사랑' '꿈과 희망'의 네 가지 소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판타지라고 하면 역시 초능력을 빼놓을 수 없다. 뮤지컬 <마틸다>는 어린 소녀 마틸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게 당연하지만 마틸다의 부모는 소녀를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싫어하는 트린치볼 교장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다 마틸다는 우연히 자신이 물건을 움직이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들과 힘을 모아 트린치볼 교장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든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로 초능력을 사용해 아이들 스스로 세상을 바꾼다는 점이 인상적인 뮤지컬이다.

추리물, 미스터리 범죄물을 다루는 스릴러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관객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쫓고 쫓기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다가 결말에 다다랐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인간 내면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1888년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미해결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스릴러 뮤지컬 <잭 더 리퍼>는 처참하게 매춘부들을 살해한 '잭 더 리퍼'를 소재로 만들어졌다. 살인마에 열광하는 대중의 모습을 통해 인간미를 상실한 사회에 대한 비판과 회한도 함께 담겨있다.

사랑에 관한 소재를 빼고는 뮤지컬을 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뮤지컬에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뮤지컬에서 사랑을 다루는 형태도 셀 수 없이 다양하다.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1950년대 뉴욕의 웨스트사이드 지역으로 옮겨온 것이다. 백인 청년 갱단과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갱단의 대립 속에서 사랑을 꿈꾸는 연인의 결말도 원작과 똑같이 비극으로 끝난다.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다룬 뮤지컬 <미스 사이공>과 같은 작품들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모성애, 전쟁에 대한 참상 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보다 가볍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처럼 잘 기억나지 않는 첫사랑을 찾아가며 순수했던 추억을 관객들과 함께 되짚어보고 웃을 수 있다. <김종욱 찾기>는 소극장 뮤지컬이지만 대중에게 오래도록 사랑을 받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도 많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은 영국 북부의 작은 탄광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 노조의 갈등 속에서 어린 빌리는 발레리노를 꿈꾼다. 투쟁으로 멈춰 선 마을에 발레리노의 희망을 품은 빌리, 탄광으로 내려가는 광부들의 모습과 높이 도약하는 빌리 등 모순된 상황이나 대비되는 모습을 아름답게 녹여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상을 담은 작품도 많다.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은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반의 이야기를 다룬다. 자살한 동급생에게서 에반이 쓴 편지가 발견되는데, 그로 인해 에반에게는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일들이 점차 생겨난다. 따돌림, 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다.

뮤지컬이 가진 소재와 배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 작품을 더 깊이 즐길 수 있다. 뮤지컬의 배경과 소재를 찾다 보면 때로는 창작자가 담아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작품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공연을 관람하기만 했다면, 한 번쯤은 내가 가장 아끼는 뮤지컬 작품을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추천 플레이리스트

<미스 사이공>
I Still Believe,
Last Night of the World,
Sun and Moon

<마틸다>
Revolting Children,
Naughty,
When I Grow up

<빌리 엘리어트>
Electricity,
Angry Dance

<디어 에반 헨슨>
Waving Through a Window,
Only Us,
You Will be Found

QR코드를 찍으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연결됩니다.

※ '이야기가 있는 산책' 코너는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온 분야를 산책하듯 이야기 하는 코너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필자로 특수검사팀 안대성 발성치료사가 뮤지컬을 주제로 5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하기 위해 걷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산책'처럼 이 코너를 통해 마음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길 바랍니다.
※ 안대성 발성치료사는 2015년부터 이비인후과 음성검사치료실에 재직 중이다. 성악과 언어치료를 전공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를 거치며 보컬 코치로서 보컬 트레이닝, 발성법 세미나, 창작 뮤지컬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저서로는 '발성의 완성을 위한 목소리 사용 설명서'가 있다. 이번 연재를 통해 독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뮤지컬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걱려를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간호

내과간호2팀 이혜진 대리



“오래 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적당히, 대충할 생각은 없죠.”

다부진 각오

“바늘이 안 아프게 잘 들어갔네요!” 투석을 위한 혈관인 동정맥루는 환자들의 생명선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다. 10년 이상의 경력에도 동정맥루 관련 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면 항상 긴장하게 된다.

삽입 부위를 적절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평생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혈관 손상이나 지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동정맥루 혈관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

그래서 매일 다짐한다. ‘대충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자!’ 한 번에 정확히 하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수습하는데 급급하게 된다. 그리고 보면 스스로 타협하는 자세를 경계하는 것이 투석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혜진 대리가 환자에게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이혜진 대리가 투석 전에 환자의 체중을 재고 있다.

“적절한 투석을 진행하며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석 환자 간호

담당 구역에 6명의 환자가 차례로 입실한다. 환자들의 체중을 측정 후 환자의 신체 사정을 토대로 투석실 담당의와 초여과량을 결정한다. 투석은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그동안 흡인이나 체위 변경, 배변, 배액관 간호 등은 물론이고 환자의 의식과 활력징후, 기계의 모니터링 수치 변화를 집중 관찰하면서 적절한 처치를 수행한다.

인공신장실에서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CRRT 치료를 진행한다. 20년 이상 투석을 받아온 환자부터 이제 막 투석을 시작한 환자까지 각기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환자들이 하루에 150~200명가량 방문한다. 오늘은 “지금 몇 시예요? 얼마나 남았어요?”라는 말을 30초 간격으로 반복하는 치매 환자에 대응하느라 더욱 분주한 기분이다.

“걱정하는 마음에 잔소리가 많아지는 저를 환자분들도 이해해 주시겠죠?”

애정과 관심이 담긴 간호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다. 즉시 담당의와 투석 중단 여부를 상의했다. 투석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부작용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예전에 비해 중환자의 비율이 크게 늘면서 긴장감도 높아졌다. 그래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오던 환자가 차츰 인공호흡기를 떼고 각종 라인이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 힘든 일상이 싹 잊혀진다. ‘치료만 잘 받으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내가 애쓰는 시간도 다 의미가 있겠지?’

컨디션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더딘 고령 환자들에게는 틈틈이 안부를 묻는다. 그냥 지나칠 법한 이야기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심장, 혈당, 골절 문제 등으로 연결될 때가 있다. 그러면 보호자에게 연락해 외래 진료를 잡고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다. 식이 조절과 약 복용에 대한 잔소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환자분, 또 땅콩 많이 드셨죠? 인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오래 만난 환자는 평소 식성과 선호하는 음식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먹을만한 게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환자의 넋두리에 순간 마음이 약해지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로 삶의 질이 달라진 환자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번 주말에 식사 일기 꼭 써주세요. 월요일에 제가 확인할 거예요~”



이혜진 대리가 투석 중인 환자의 안전라운딩을 하고 있다.



이혜진 대리(오른쪽)가 김규민 주임과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있다.

“서툴렀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 환자분이 많아요. 함께한 시간 만큼 친밀감을 느끼죠.”

오랜 인연

2003년 외과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던 때였다. 평소 투석실 선생님들이 중환자실에 와서 왕진 투석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던 차에 부서장님의 제안을 받았다. “투석실로 부서를 이동하는 건 어때요?” 투석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지만 선뜻 “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투석실은 외래, 일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중환자실에선 혼한 혈압 수치가 이 곳에선 응급 상황과도 같았다. 또 투석기의 알람이 울리면 혈액 펌프가 작동을 멈춰 몸 밖으로 나온 환자의 혈액이 응고되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진땀 나는 상황에 매일 대응하면서 투석 간호의 노하우를 익혀나갔다. 후배 간호사에게 업무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던 환자가 “선생님도 이제 고참이 다 됐네요. 어리숙할 때가 있었는데...”라며 웃었다. 투석실과 외 서툴고 실수가 잦던 시절, 잔뜩 긴장한 나에게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라며 먼저 다가와 준 환자였다. 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따뜻하게 응원해 주는 환자들 이 있어 이곳에서의 추억도 풍성하게 느껴진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조영제 과민 반응 환자에서 대체 조영제 선택 전략



알레르기내과 이지향 조교수

알레르기내과 이지향 조교수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조영제 과민 반응 환자에서 피부 시험 기반의 대체 조영제 선택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 이 연구결과는 조영제 과민 반응을 경험한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대체 조영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 연구의 배경은? 검사와 시술을 목적으로 한 요오드화 조영제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과민 반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조영제는 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민 반응 재발을 위한 방안으로 조영제 변경, 전처치 약물 투약, 조영제 유발 시험 등이 제시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조영제 과민 반응도 이뮤노글로불린E(IgE)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밝혀지면서 알레르기 진단 및 교차 반응 평가를 위한 피부 시험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여러 연구에서 피부 시험 음성인 조영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됐지만 대규모 전향적 연구로 효용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를 배경으로 피부시험기반의 과민반응 재발 방지 프로토콜을 검증하고자 했다.

로 나온 경우 나머지 선택 가능한 조영제로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 확인된 조영제를 다음 CT 검사에 사용했다. 만약 원인이 되는 조영제 피부 반응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검사 없이 조영제를 변경했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전처치 약물을 투약했고, 이전 과민 반응의 원인 조영제는 재투약되지 않도록 했다. 총 269명이 이와 같은 프로토콜을 따랐고, 이 그룹에서 약 85%에 해당하는 228명은 다음 CT 검사에서 과민 반응이 재발하지 않았다. 또한 재발한 대상자에서 중증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본 연구는 지난 2년간 14개 기관이 함께 진행한 전향적 연구다. 조영제로 인해 급성 과민 반응을 경험한 환자들을 모집해 피부 시험 기반의 조영제 선택 프로토콜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부작용을 유발하는 조영제로 피부 반응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이어갔다. 원인이 되는 조영제에 의해 피부 반응 검사가 양성으

Q. 앞으로의 계획은? 본 연구로 피부시험 기반의 대체 조영제 선택이 급성 과민 반응의 재발을 예방하고, 재발된 경우에도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예방법을 적용해도 과민 반응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조영제 과민반응 재발 방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또한 환자의 어떠한 개별 특성이 이러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기여하는지 함께 밝혀보고 싶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환자와 아기 모두를 위해



암병원간호2팀 문소희 주임



첫 아이를 임신해 이제 막 11주를 넘긴 김수지(가명)님의 진단명은 자궁경부암이었다. 환자는 치료적으로 유산을 해야 하며 경부암에 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했다. 입원 후 검사 결과 암의 사이즈는 이미 6cm가 넘게 커져 있는 상태였고, 임신 중이기 때문에 일부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도 100% 확신할 수 없었다. 교수님, 전문의와 함께 해외 문헌을 찾아보았고 11주의 임신 초기 산모에게는 항암치료를 권장하지 않으며 추후 치료 예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예전에 산모에게 항암제를 투약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20주 이상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3번 정도 투약 후 출산을 계획했다. 하지만 김수지님의 경우 출산까지 6번 이상 투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의료진은 임신 유지가 어려운 상태고 자궁경부암의 치료가 시급함을 설명했지만 환자는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많은 고민과 설득 끝에 환자는 선행항암화학요법을 2차례 시행한 뒤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유산을 하고 경부암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항암치료 전까지 항암제가 임신 초기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암제 전에 투약 되는 다른 약물들은 문제가 없을지 등을 고민했고 이미 확인된 약제들도 다시 한번 약제팀과 살펴봤

다.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환자에게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는 아이까지 생각해야 해서 항암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약제들 중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도 많아요. 어떤 순간에는 김수지님이 홀로 견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앞으로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다같이 노력해 봐요”라고 말했다. 2차 항암 후 다행히 암의 사이즈는 4.5cm로 줄었고, 약이 효과를 보여 최대한 임신을 유지하면서 항암치료를 지속하기로 했다. 4차 항암 후에는 2.5cm, 6차 항암 후에는 1.8cm까지 암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34주까지 아이는 무사히 자랄 수 있었고, 출산과 동시에 자궁경부암에 준한 치료를 시작했다. 정말 다행히도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주변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수술 후 보조적으로 항암치료를 3차례 더 받았고 지금은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 중이다. 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다. 김수지님은 퇴원하는 날 복도에서 내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아기가 살 수 있었던 건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의 도움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자는 환하게 웃었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울하면 약을 먹어야 하나요?



건강의학과 안명희 임상전임강사

가끔 우울한 기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우울해졌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땐 업무에 대한 부담, 육아에 대한 고충,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슬픈 기분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리 전 호르몬의 변화, 타고난 기질, 가족력 등이 기분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땐 생물학적 원인을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는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울한 기분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많은데, 대부분 여러 사건들로 인한 슬픔을 표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정상적인 슬픔과 병적 상태의 우울증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통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식사, 수면 등 생리적 리듬의 변화가 생기고 피로감, 집중력 저하로 일상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울증 진단을 내립니다. 중증도에 따라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권하는데, 심각한 경우엔 오히려 치료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증인 경우 우울증 진단 자체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은 사람들이 주변의 도움과 지지를 기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같이 일하고 싶지 않거나 미덥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약물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지만 약물 복용은 우울증에 대한 인정,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느낌과 연관되어 투약 거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둘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뇌영상 소견에서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아론 벡(Aaron T. Beck)은 우울증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 자신의 경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잘했던 일보다는 잘못했던 일만 선택적으로 떠올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와 같은 생각이 이어져 못마땅했던 결정을 곱씹으며 후회하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안으로 침잠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과도하게 고민하고 심리화하며 인지 왜곡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지치료는 자신의 역기능적 사고를 찾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수정을 통해 기분의 호전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패턴을 포함한 행동의 변화를 통해 항우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코올 사용 여부의 확인, 수면 패턴의 안정화를 포함해 운동하기, 재미있는 영화 보기, 자신을 아껴주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본 후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조금 덜 힘들게, 더 짧게 지나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 안명희 임상전임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맞습니다. 직원들의 크고 작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마음건강노트' 코너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장병원간호팀

김보민 **사원입니다**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든든한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는 심장혈관흉부외과 병동에서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수술 전·후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막이나 대동맥 수술, 부정맥 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및 심장이식 환자들을 간호합니다. 수술 전에는 환자들이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폐 운동 등을 돕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수술 후에 기력도 없고 식사도 잘 못하던 환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제 사소한 간호 행위 하나하나가 환자들의 치료 여정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면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겨요. 밝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와 대면할 때 긍정적인 기운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실수가 많은데도 항상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프리셉터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133병동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제 몫을 다하는 간호사가 되어 신뢰를 받는 동료가 되고 싶어요!

퇴근 후 일상은 동기들과 함께 병원 근처의 맛집을 다니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체력적인 소모가 크기 때문에 성내천을 건너나 등산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가 익숙해져서 여유가 생기면 스포츠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배워보고 싶어요.

앞으로 목표는 심장 질환과 수술에 대한 지식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환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든든한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따릉이' 타고 떠나는 서울 라이딩

서울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4월 말 기준으로 따릉이 누적 이동 거리가 3억 8,700만km를, 누적 대여건수가 1억 4,000건을 돌파했다. '따세권(따릉이+역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따릉이를 타고 청명한 초여름의 서울을 누벼보자. 따릉이를 타고 달리기 좋은 서울 라이딩 코스를 소개한다. <편집실>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한양 궁궐 코스



서울의 중심,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난 자전거 도로를 타면 덕수궁이 등장한다. 덕수궁 옆으로 이어지는 정동길은 도로 한쪽이 자전거 우선 도로로 지정돼 있어 편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서양 문화가 가장 일찍 도입된 곳인 만큼 옛 이화학당과 배재학당,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인 정동제일교회 등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정동길을 끝까지 달리면 맞은편에 또 하나의 궁이 나타난다. 조선 후기 인조 대부터 철종 대까지 이궁으로 쓰인 경희궁이다. 경희궁 옆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 들르는 것도 좋다. 서울의 유적, 옛 가옥의 형태, 유물 등을 보며 '도시 서울'의 변천사를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추천 코스 광화문광장 - 덕수궁 - 정동길 - 경희궁 | 거리 1.8km | 시간 10~15분 |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 광화문역 6번 출구 옆(A, B)

강변 따라 유유자적 여의도 둘레길 코스



63빌딩을 비롯한 고층 빌딩과 여유로운 한강변의 풍경이 어우러지는 여의도한강공원은 자전거 코스로 인기가 많다. 수변무대가 있는 물빛광장을 지나 여의도공원, 여의도역을 향해 달리다 보면 수풀이 우거진 샛강생태공원에 닿는다. 199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샛강생태공원에서 샛강역 방향으로 나와 반포대교까지 달려보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에 이어 등장하는 반포대교 남단에는 복합문화공간 세빛섬, 달빛무지개분수 등 볼거리가 많다. 신나게 달리다 출출해지면 반포한강공원 앞 편의점에서 꿀맛 같은 간식 시간도 가져보자.

추천 코스 여의도한강공원(여의나루역) - 샛강생태공원 - 반포한강공원 | 거리 11.5km | 시간 50~55분 |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서울 도심을 달리다 종로 '라이딩 스루' 코스



종로 자전거 전용 차로는 2018년 4월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총 2.6km 구간에 걸쳐 개통됐다. 찾길 끝 폭 1m를 암적색으로 칠해 표시한 자전거 전용 차로의 시작점은 광화문 우체국 앞이다. 전용 차로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구간이 많고 도로 폭이 좁아 앞 자전거를 추월해야 한다면 전용 차로를 잠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 속도를 내기보다는 안전에 유의해서 타는 것이 좋다. 페달을 부지런히 밟으면 전용 차로 종로 지점인 동대문까지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조금 더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동대문을 지나 중랑천 자전거길로 향하자. 상암십리를 지나 중랑천을 따라 용담역 앞까지 산책로가 이어진다.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다.

추천 코스 광화문 우체국 - 종로1가~종로5가 - 동대문 | 거리 2.7km | 시간 10~15분 |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 광화문역 5번 출구 앞

자전거도 식후경 용산 '먹방 라이딩' 코스



이촌역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보통 이촌한강공원을 향하곤 한다. 하지만 먹거리와 놀거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개를 돌려 이태원과 경리단길을 향해 가보자. 우선 이촌역 3-1번 출구 근처로 페달을 밟으면 조용한 동네 곳곳에 위치한 음식점과 카페를 만날 수 있다. 이촌역에서 서빙고역 1번 출구까지 달리다가 좌회전을 하면 녹사평역까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이어진다. 녹사평역 인근에 위치한 경리단길, 이태원역 인근에서 다양한 세계음식을 즐겨보자. 든든히 배를 채웠다면 경리단길을 쪽 따라 올라가는 오르막 코스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경리단길 끝까지 달리면 남산 하얏트 호텔이 나온다. 아래로 펼쳐지는 이태원과 해방촌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추천 코스 이촌역 - 국립중앙박물관 - 이태원 - 경리단길 | 거리 4.5km | 시간 15~20분 |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 이촌1동 주민센터 뒤

이달의 취향저격 SNS



리하의 두 번째 심장 소아 심장 이식 김리하 편

리하의 새로운 봄을 응원합니다♥ 9개월 동안 리하랑 엄마가 병원에서 잘 지내고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분들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환자에게 건네는 한마디,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친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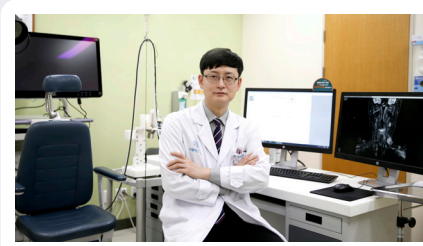
-영양팀 김준경 주임



우울증 극복을 위한 1초의 전기자극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이 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치료방법을 '뇌를 재부팅한다' 같은 표현으로 환자나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 다양한 건강정보 콘텐츠도 자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병원간호2팀 이진주 주임



이비인후과 권민수 부교수 편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시는 권민수 교수님의 세심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환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애써주시는 교수님과 같은 의료진 덕분이겠죠. 앞으로도 환자들이 믿고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의료정보관리팀 임지현 주임

구독하고, 감상평 쓰고, 선물 받아주세요!

이벤트 1 1. 서울아산병원 유튜브 구독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2. 설문조사 QR코드에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 2 1. 서울아산병원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콘텐츠 감상하기
2. 설문조사 QR코드 링크에 감상평 작성하기



설문조사 QR코드

굿바이 콩글리시

수술 전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하는 질문이 있다. "오늘 어떤 수술받으세요? 수술 부위가 어디인가요?"를 영어로 "What kind of surgery will you receive today? Where is your surgical site?"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막힐수록 쉬운 단어를 써야 하지만 병원에서는 환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상용 표현을 쓰자. "What type of surgery are you having today? And which part of your body will be operated on?"

오늘 어떤 수술받으세요? / 수술 부위가 어디인가요?

- What type of surgery are you having today?
Which part of your body will be operated on?

Let's Talk

- A Hello! What type of surgery are you having today? 오늘 어떤 수술받으세요?
B I'm scheduled for a knee surgery. 무릎 수술이에요.

쉬운 영어를 가로막는 직역투의 영작. 대표적 사례가 '다음 외래 때 뵙게요'. 영어로 '외래'가 outpatient 니 'See you at next outpatient clinic'이라고 직역하는 식이다. 우리말로는 '외래'이지만 맥락 상으로는 '방문'이니, 'next visit' 또는 'next appointment'가 좋다. 글이든 말이든 최소한의 단어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최상이니까.

다음 외래 때 뵙겠습니다

- I'll see you at next outpatient clinic.
I'll see you at next appointment (visit).

Let's Talk

- A Good news, your test results came back normal. 좋은 소식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B What a relief! Thank you. I'll see you at the next appointment. 마음이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외래 때 뵙겠습니다.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정작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유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사,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래간호팀 최은화 대리

'이야기가 있는 산책 - 뮤지컬 장르, 아는 만큼 즐긴다' 코너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전문가가 엄선한 추천 플레이리스트까지 담겨 있어 뮤지컬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검사팀 문효인 사원

'마음건강노트 - 지나간 일이 반복적으로 떠오를 때'를 읽으며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과거를 계속 돌아보며 즐거워하기도, 후회하기도 해요. 과거에 계속 얽매이지 않고 잘 흘러보내며 지금 제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의학팀 영상운영 유닛 임승현 주임

'이달의 취향저격 SNS' 코너에 소개된 '하루' 영상을 유튜브에서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다른 부서, 다른 직종의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기회가 없었어요. 이 콘텐츠를 계기로 우리 병원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암병원간호2팀 최유진 직원(선임기능)

'웰컴 투 AMC' 코너에 담긴 우리 병원 해외의학자들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수한 의료를 배우기 위해 타지에서 애쓰는 해외의학자뿐만 아니라 연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지도교수님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건진운영팀 오선미 사원

우리 병원의 '꽃사모' 전시회 소식이 다른 그림 찾기 코너에 실렸네요! 향긋한 꽃 향기를 맡으며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외래간호팀 신향리 사원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을 고치고, 실제로 한두 마디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호 정답

제700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마음건강노트 - 지나간 일이 반복적으로 떠오를 때'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심장병원간호팀 김보민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